

# 큰글자책 제작 및 보급 현황과 서지적 특성 분석

- 2009년부터 2022년까지를 중심으로 -

## Analysis of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Status and Bibliographic Characteristics of Large Print Books from 2009 to 2022

임성관 (Seong-Kwan Lim)\*

### 〈 목 차 〉

I. 서론	III. 큰글자책의 현황과 서지적 특성 분석
II. 이론적 배경	IV. 결론 및 제언

**요약:**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큰글자책 보급 지원 사업에 보조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도서관협회가 제작 및 보급하고 있는 큰글자책의 현황과 서지적 특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2009년부터 2022년까지의 제작도서 목록을 분석한 결과 평균 종수는 20.5권이고 책수는 21.7권이었다. 선정된 도서의 주제 분야는 '문학(39.5%)'이 가장 많았고, 번역서의 비중은 19.9%였으며, 가장 많은 책이 선정된 저자는 총 6권의 법률 스님이었다. 또한 큰글자책이 보급된 공공도서관은 매년 평균 454곳이었는데, 향후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면서 더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측면, 선정의 측면, 제작을 위한 측면, 안내의 측면에서 각각 적정 방안을 모색해 제언하였다.

**주제어:** 큰글자책, 고령자, 저시력자, 도서 접근성, 독서 기회, 공공도서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bibliographic characteristics of large-print books produced and distributed by the Korea Library Association, which participates as an auxiliary operator in the support of the large-print books distribution project promo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list of production books from 2009 to 2022, the average type was 20.5 books and the number of books was 21.7. The subject field of the selected books was 'literature (39.5%)', the proportion of translated books was 19.9%, and the author of the most books was a Beopryun monk with a total of six books. In addition, an average annual number of public libraries where large-print books were distributed was 454, and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appropriate measures were sought and proposed in terms of policy, selection, production, and guidance so that the project could continue stably and achieve higher results in the future.

**KEYWORDS:** Large Print Books, The Elderly, Low-sighted, Book Accessibility, Reading Opportunities, Public Library

\*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조교수(kglimpro@kyonggi.ac.kr / ISNI 0000 0004 6363 6794)

• 논문접수: 2023년 2월 20일 • 최초심사: 2023년 3월 5일 • 게재확정: 2023년 3월 18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4(1), 69-90, 2023. <http://dx.doi.org/10.16981/kliss.54.1.202303.69>

\* Copyright © 2023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공공성(publicness)이란 공공 영역 혹은 공공 공간의 규범적 특성으로써, 가치의 다수성과 공통성, 그리고 공개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공공적 가치를 해석하고 정의하는 정치·사회·문화적 의미를 포함하는 규범적 의미이며, 단순히 사회의 집단적인 성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현대 시민사회에서 형성된 자율적인 공간을 가리키는 말로서의 의미가 크다(서수미, 2013, 10). 현대적 공공성의 개념은 크게 공적, 공익, 공정, 공론의 네 가지 측면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염철호, 조준배, 심영미, 2008, 20-22), 정치적으로는 공정성, 경제적으로는 공익성, 문화적으로는 공론성을 가진다고 해석하며, 정보의 공개, 자유로운 접근, 자유로운 표현과 소통, 권위나 음모가 아닌 자율적이고 공개적인 참여와 토론을 통한 지식·담론 생산과 소통의 장이라고 표현한다(하석현, 2014, 17). 이는 곧 사람들의 집단이 갖는 수동적 특성이 아니라 공공성을 지닌 공간에서 그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합리성에 근거하여 받아들이는 만족도로 치환할 수 있음을 뜻하며(김기영, 2013, 23), 현대적 공공성의 개념인 문화적 측면의 '공론'과도 의미적으로 일맥상통한다(김연희, 2017, 19).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도서관법, 2020)이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장애인도서관,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을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캘리포니아 맨해튼 비치 공공도서관 계단 벽에 적혀 있는 문구처럼, 모든 사람들이 읽고, 쓰고, 배우고, 만나고, 듣고, 발견하고, 탐험하고, 운동하고, 놀고, 관찰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리고 창작하고, 만들고, 경험하고, 묻고, 토론하고, 검색하고, 찾고, 될 수(도서관여행자, 2022, 85)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이 공공성을 바탕으로 설립 및 운영이 된다고 해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취약계층들은 항상 있게 마련이다. 그 가운데 고령자나 저시력자는 독서를 하기에 부족한 시력 때문에 특히 자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정부는 2002년 고령층들을 독서 소외인으로 정의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대체자료로 음성도서와 큰글자책을 제시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만 음성도서를 제작하고 서비스하는 것을 허용했던 저작권법을 2003년에 대통령령으로 개정해 독서 소외인까지 그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그 결과 2007년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 3항에서 독서소외인을 '시각 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로 정의하고, 2008년도에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발표한 도서관발전종합

계획에 고령층을 위한 공공도서관에서의 큰글자책 제공을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한국도서관협회를 통해 큰글자책 지원 보급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박찬수, 2021, 32-33).

큰글자책 지원 보급 사업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4년 동안 운영이 되었는데, 관련 연구는 아직 한 건도 발표된 것이 없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도서관협회가 제작 및 보급하고 있는 큰글자책의 현황과 서지적 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큰글자책 선정 및 제작과 보급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는데 목적이 있다.

## 2. 연구문제 및 방법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큰글자책 보급 지원 사업에 보조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도서관협회가 제작 및 보급하고 있는 큰글자책의 현황과 서지적 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큰글자책 선정 및 제작과 보급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이론적 측면에서 큰글자책과 서지적 특성의 개념을 살펴보고 선행연구 결과들을 정리하면서 분석을 위한 요소를 도출하였다.

둘째,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발표한 2009년부터 2022년까지의 큰글자책 제작도서 목록과 큰글자책 배포 도서관 목록을 바탕으로, 제작 및 보급 현황과 서지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셋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큰글자책 선정 및 제작과 보급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큰글자책

큰글자책은 영어로는 Large Print Book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확대문자도서, 큰활자도서 등으로 알려져 왔다. 본문 내용의 글자 크기에 대해서 육근해(2009)는 큰글자책은 최소한 18포인트 이상으로서 돋보기를 사용하거나 확대기를 사용하는 이들에게 아주 유용한 도서라고 했고, 장혜란(2015)은 일반 책은 활자가 10-11포인트로 인쇄되는 반면에 큰글자책은 16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인쇄된다고 하였으며, Kavanash와 Skold(2005)가 정리한 IFLA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활자 크기를 16포인트 이상으로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큰글자책은 활자가 16포인트 이상으로 인쇄가 된 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큰글자책이 시각장애인 중 일부 시력을 갖고 있는 저시력, 약시라고 하는 이들을 위한 특수 자료로만 인식되어져 왔다. 그러나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은 큰글자책이 저시력인을 위한 것뿐 아니라 노인을 위한 대체자료로 활용되고 있다(육근해, 2009, 175).

Hamilton(2022)은 큰글자책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룹으로 '시각장애인(노인과 저시력자 포함)', '난독증이 있는 사람', '피곤한 사람들', '버스나 기차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사람', '참을성이 없는 사람'을 꼽았다. 이 가운데 '피곤한 사람들' 중에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글꼴 크기가 커서 눈의 피로도를 줄여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고, '버스나 기차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도 큰 서체의 책을 주면 움직임 속에서도 책을 더 잘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참을성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큰 글꼴로 인해 페이지 당 단어가 적기 때문에 빠른 진행감과 발전감을 느낄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큰글자책 출판은 2000년대 초에 실버북 분야가 잠깐 화두로 떠오르면서 일부 출판사들이 글자를 키우고 행간을 넓히는 몇 가지 시도가 있었다. 2001년에는 평민사 '실버문고' 시리즈, 웅진닷컴, 나무생각 등에서 출판이 되었고, 2002년에는 세종서적과 민음사에서 출판이 되었으나 대체로 판매가 부진하였다(박선주, 2004).

우리나라에서 큰글자책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말에 이르러서다. 2008년에 도서출판 점자에서 큰글자도서 14종을 제작하였으며 2010년에는 세계한국문학전집 50권이 큰글자로 발행되었다(큰글편집위원회, 2010). 또한 2009년에는 민음사가 '책 좀 같이봅시다' 캠페인을 시작하여 자사 도서 중 11종을 큰글자로 만들었다. 2012년에 살림출판사는 대표 브랜드인 살림지식총서 중 선호도가 높은 도서를 엄선하여 문고판 최초로 '큰글자 살림지식총서' 50종을 15포인트로 제작하였다. 2014년 커뮤니케이션북스에서는 기존 출판물의 활자를 17포인트로 하고, A4 크기의 판형으로 확대하여 4개 브랜드를 통해 큰글자 도서를 대대적으로 생산하였는데, '커뮤니케이션북스' 1,100종, '지식공작소' 41종, '지식을 만드는 지식' 400종, '학이시습' 14종 등을 출판하였다(장혜란, 2015, 346).

이어서 출판사 김영사는 2019년부터 큰글자책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분야별 도서 중 베스트셀러 위주로 선별해 반기별로 10종씩 출간하는 중이다. 또한 출판사 다산북스는 큰글자책 제작·유통을 담당하는 '리더스윈' 시니어 플랫폼 브랜드를 만들었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2019년 576종이었던 큰글자책 종수는 2020년 1,042종, 2021년 1,410종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또한 2020년 큰글자책 판매량은 2019년보다 28.5% 증가했다고 한다. 하지만 출판 시장에서 큰글자책의 영향력은 미미하다. 수익성이 낮아 출간하기 꺼리는 출판사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고령화로 인해 큰글자책 시장에 관심을 보이는 출판사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아시아경제, 2022).

국내 큰글자책 제작 및 보급 현황은 2020년 6월부터 어르신과 시력이 좋지 않은 분들의 책 읽기를 돕고 출판 콘텐츠의 다양한 활용을 위하여 큰글자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출판협동

조합의 '제작 공급 큰글자책 도서목록'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확인 결과 한국출판협동조합에서는 2022년 6월 기준 50여 개 출판사와 제휴하여 700여 종의 큰 글자책을 제작하여 보급함으로써 어르신과 저시력자들의 독서 기회를 증진시키고, 출판사들에게는 기존의 출판 콘텐츠를 이용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었다. 다음의 <표 1>은 2023년 3월 기준 한국출판협동조합에서 제작 및 공급한 큰글자책 목록을 바탕으로 연도별 주제별 종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한국출판협동조합 연도별 주제별 큰글자책 제작 종수

연도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합계
2020	7	29	11	32	11	26	7	3	48	25	199
2021	4	90	17	84	3	51	8	2	65	49	373
2022	1	55	1	39	1	4	2	0	24	25	152
2023	0	5	0	9	2	2	1	0	10	14	43
합계	12	179	29	164	17	83	18	5	144	113	767
평균	1.6	23.4	3.8	21.4	2.2	11	2.4	0.7	18.8	14.7	191.75

## 2. 서지적 특성

서지는 책이나 문서의 형식이나 체제, 성립, 전래 등에 관한 사실 또는 그것을 기술한 것, 어떤 인물이나 제목 등에 관한 문헌 목록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료(문헌)에 관한' 또는 '자료(문헌)의' 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더불어 서지사항은 '자료에 관한 사항', 서지요소는 '자료의 요소', 서지정보는 '자료에 관한 정보', 서지기술은 '자료에 관한 기술', 서지적 관계는 '자료 간의 관계', 서지적 내력은 '자료의 내력'으로 뜻을 풀이할 수 있다(전창호, 2021).

문헌정보학용어사전에 따르면 '서지학'은 책을 대상으로 문자를 수단으로 표현한 본문과 그 본문이 나타내는 지적 소산의 내용, 그리고 그것을 담고 있는 물리적 형태를 조사, 분석, 비평, 연구하여 기술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서지정보'는 기술의 대상인 자료가 지닌 물리적 사항으로 여기에는 저자, 판사항, 발행지, 발행처, 발행년, 기타 형태사항(크기나 삽화, 딸림자료 등), 총서, 표준번호, 가격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이어서 '서지기술'은 저작물이나 음악, 악곡 등에 대한 기술로 저자, 편자, 역자, 삽화가 등 저작물 소개에 공헌한 자, 표제, 판사항, 발행일, 발행지와 발행사 등에 대한 상세 항목이 기술되며, 일반적으로 목록기술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서지적 특징은 자료의 본문, 그것을 담고 있는 물리적 사항, 표제, 저자 등 목록 기술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여러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표제, 저자, 판사항, 발행지, 발행처,

발행년, 기타 형태사항, 총서, 표준번호, 가격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다(이윤석, 2020, 7).

서지사항은 도서를 선정하여 추천 도서 목록을 발행하는 기관들도 제공하고 있다. 다음의 <표 2>는 청소년 추천 도서 목록을 선정하는 기관들이 제공하는 서지사항에 대해 이윤석(2020)이 정리한 내용이다.

<표 2> 청소년 추천 도서 선정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지사항

기관명	서지사항	개수
과학장의재단	부문, 도서명, 출판사, 저자, 역자	5
대한출판문화협회	부문, 도서명, 출판사, 저자, 역자	5
문화체육관광부	분야, 도서명, 출판사, 저자, 역자	5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책제목, 지은이, 역자, 발행연도, 주제 구분	6
한우리	도서명, 저자, 역자, 출판사, 대상, 소개 글	6
책따세	제목, 저자, 역자, 출판년도, 분야, 출판사, 수준, 페이지 수	8
행복한아침독서	도서명, 출판사, 저자, 역자, 가격, 대상, 분야, 출간일, ISBN	9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분야, 도서명, 저자, 역자, 출판사, 발행일, 대상, 가격, ISBN, 페이지	10
어린이도서연구회	책이름, 지은이, 옮긴이,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 가격, 대상 연령, 주제, 시리즈, ISBN	11

<표 2>에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면, ‘서명’, ‘저자’, ‘역자’, ‘출판사’에 대한 서지사항은 9개 기관 전체가 제공하고 있고, ‘주제 구분(부문, 분야)’은 8개 기관이, ‘출판년도(발행연도, 출판일)’와 ‘대상(수준)’은 5개 기관, ‘쪽수(페이지)’, ‘가격’, ‘ISBN’은 3개 기관, ‘시리즈’와 ‘소개 글’은 1개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었다.

한국출판협동조합에서는 큰글자책 제작 절차 및 방식으로 ‘대중화를 위한 본문 용지 및 표지 용지의 통일’, ‘판형 크기의 최적화 사양 구축’, ‘무게를 가볍게 하여 휴대를 간편하게’, ‘제작처 지정 일괄 제작을 통한 원가 절감, 납기 준수, 퀄리티 보장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큰글자책은 일반도서와 내용은 같지만 글자 크기가 커지면서 쪽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주 대상 독자층이 고령자와 저시력자이기 때문에 글자가 선명하게 인쇄될 수 있는 용지이면서 휴대에도 부담이 없는 가벼운 용지여야 한다. 그러므로 일반도서와는 다른 서지사항으로 ‘용지’, ‘판형’, ‘무게’에 관한 사항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미국시각장애인협회(American Council of the Blind)에서는 큰글자책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글꼴 크기(font size)’, ‘글꼴 스타일(font style)’, ‘행 간격(line spacing)’, ‘대비(contrast)’에 대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Hamilton(2022)은 미국시각장애인협회와 영국왕립시각장애인협회(Royal National Institute for the Blind), 미국시각장애인재단(American Foundation for the Blind) 등에서 제시한 큰글자책 제작에 필요한 항목을 종합하여 ‘18포인트

크기의 글꼴 사용’, ‘산세리프(sans serif) 글꼴 사용’, ‘라인 높이는 1.5 이상으로 유지’, ‘문단 들여 쓰기 대신 공백 사용’, ‘불규칙한 오른쪽 텍스트 사용(use ragged right text)’, ‘제목과 머리말은 더 큰 글꼴이어야 하며 왼쪽 정렬’, ‘글머리 기호(bulleted items)는 이중 간격’, ‘검은색 텍스트만 사용’, ‘텍스트를 강조하려면 기울임꼴 대신 굵게 표시’, ‘더 큰 트림(trim) 크기 선택’과 같이 총 10개의 항목을 제시했다.

이상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서지적 특성은 매우 다양하며, 큰글자책 제작을 위한 사항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서지적 특성 분석은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발표한 2009년부터 2022년까지의 큰글자책 제작도서 목록을 바탕으로만 실시했기 때문에, 분석 기준은 목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주제 구분(한국십진분류표 주류)’, ‘저자 구분(단독 및 공저 여부/성별/단체/최다 선정 저자)’, ‘번역서 구분’, ‘출판사(제작 기관) 구분’으로만 한정하고자 한다.

### 3. 선행연구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급 지원 사업을 꾸준히 지속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큰글자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관련 연구는 활발하지 않다. 또한 서지학 분야의 연구는 많으나 도서의 서지적 특성을 분석한 연구도 많지 않다. 따라서 분야와 발표연도를 망라해 큰글자책과 서지적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다.

육근해(2009)는 ‘노인용 큰글자도서 개발을 위한 적정문자 연구’에서, 노인용 큰글자도서 개발을 위한 적정문자를 밝히고자 80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연구 하였는데, 그 결과 노인들이 선호 하는 문자의 종류는 고딕체였고 선호하는 문자의 크기는 18포인트였으며, 행간은 130%를 선호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장혜란(2015)은 ‘노안 독자를 위한 큰글자도서 이용가능성 연구’를 통해, 노인의 독서를 용이하게 만드는 한글 큰글자도서의 출판과 수집 및 이용가능성을 조사하였다. 특히 큰글자도서의 출판과 유통에 대하여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서지리스트와 교보문고의 재고 리스트를 기초로 하고, 공공도서관에서 접근 가능한 큰글자도서는 한국도서관협회가 보급한 큰글자도서 리스트와 기존의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현황조사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이용 가능한 큰글자도서의 유형, 종수와 권수, 출판연도, 주제, 중복성 등을 분석하였다.

박찬수(2021)는 ‘큰글자책 출판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소고’를 통해, 큰글자책의 특성은 무엇이며, 역사적 배경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국내 큰글자책 출판 현황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향후 큰글자책 출판의 지속가능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독서는 고령층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측면에서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다른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등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큰글자책의 부수, 종수, 지원처 등의 증가 등 큰글자책을 하나의 콘텐츠로 인식하고 직접 출판을 확대하는 문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제안하였다.

김시내(2004)는 '권장도서의 선정 현황과 특성 분석: 유아도서를 중심으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권장도서 목록의 선정 현황과 유아용 도서의 서지적 특성을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 권장도서목록은 연령별, 문학 장르별, 분야별로 주로 구성되어 있었고, 2-4 문장의 이야기 요약과 비평 또는 리뷰 등 간략한 의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윤석(2020)은 청소년 추천도서 선정 기관의 특징과 추천도서의 서지적 특징을 분석하여, 청소년을 비롯한 목록 이용자들이 목적에 따라 선정 기관을 선택하여 효율적으로 추천도서목록을 이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청소년 추천도서의 선정과 서지적 특징' 연구를 실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추천도서들을 대상으로 주제 분야, 저자관련사항, 표제관련사항, 이미지 유형, 가격, 독자 기호 등의 변인을 추출하고, 이들을 기술통계분석, 교차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 등을 통해 서지적 특징을 분석한 결과, 주제 분야와 저자 국적, 독자기호가 선정기관과 유의미한 연관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표제사항에서는 '표제 글자수, 표제 글꼴, 표제 크기'에서, 저자사항에서는 주제 분야와 연관이 있다는 결과도 도출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의 공통점은 큰글자책을 대상으로 했거나 기준을 수립한 뒤 서지적 특성을 분석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큰글자책의 글자 크기나 출판의 측면이 아닌 제작과 보급 현황을 파악 및 분석했다는 점에서의 차이가 있다.

### Ⅲ. 큰글자책의 현황과 서지적 특성 분석

#### 1. 큰글자책의 제작 현황

큰글자책 보급 지원 사업은 큰글자책 제작과 보급, 큰글자책 활용 프로그램 시범 사업 운영, 큰글자책에 관한 세미나 개최, 큰글자책 홍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큰글자책을 중심으로 도서관-출판계-독서계 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첫 단계는 제작 대상 도서를 선정하는 것인데,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이동도서관 및 노인 전문 열람실 등을 운영하며 노인(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서비스를 하는 도서관들에게, 최근 1년 동안의 대출도서 중 상위 20종의 목록(도서명, 저자명, 출판사명, ISBN 등 포함) 제출을 협조 요청함으로써 후보 도서를 선정했다.

이어서 후보 도서가 선정되면 도서관 정보나루 대출량(40%)과 대형서점 3개사의 판매 순위(60%)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뒤 순위를 매겨, 총점, 도서명, 저자 정보, 출판사명,

분야(KDC), 발행연도, 도서 정가, ISBN, 권에 대한 정보를 담아 정리한 뒤, 그 결과를 심사 위원들에게 발송하여 1차 심사가 개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한다. 1차 심사에서 큰글자책으로 제작되었으면 하는 도서가 위원별로 각 50권씩 선정이 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2차 심사가 진행된다. 2차 심사는 1차에서 가장 많이 선정된 책을 우선적으로 뽑고, 그 외 종수는 저자 및 출판사의 중복 여부, 주제 구성 비율, 출간년도 등을 고려해 최종 제작도서가 결정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선정된 일반도서는 16포인트 크기의 큰글자책으로 최종 제작이 된다. 다음의 <표 3>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제작된 큰글자책의 종수 및 책수 현황이다.

<표 3> 연도별 큰글자책 제작 현황

연도	제작 종수	제작 책수
2009	20	22
2010	15	16
2011	21	22
2012	22	22
2013	22	23
2014	22	24
2015	21	22
2016	14	15
2017	23	24
2018	21	22
2019	14	14
2020	27	27
2021	24	24
2022	24	24
합계	290	301
평균	20.7	21.5

<표 3>에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제작된 큰글자책은 총 290종 301권이였다. 따라서 이를 다시 총 사업 기간인 14년으로 나누면 연평균 종수는 20.7권이고 책수는 21.5권이다. 또한 큰글자책 제작 종수 및 책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20년이고, 반대로 가장 적었던 해는 2019년이였다. 결과적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제작된 큰글자책의 책수는 누적되고 있지만, 평균 제작 종수 및 책수가 20권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양적인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 2. 큰글자책의 보급 현황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제작한 큰글자책을 보급할 때에도 큰글자책을 관리 및 활용할 의지가

있는 도서관들의 신청을 7월 중에 우선 받고, 그 수가 많을 경우 노인 인구가 많은 도서관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최종 배포는 8월 중에 시작된다. 다음의 <표 4>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각 연도별로 큰글자책을 보급 받은 도서관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4> 연도별 큰글자책 배포 도서관 현황

연도	배포 도서관 수
2009	80
2010	82
2011	150
2012	126
2013	222
2014	251
2015	156
2016	560
2017	700
2018	1,058
2019	1,006
2020	659
2021	705
2022	600
합계(개)	6,355
평균(개)	453.9

<표 4>에 정리한 바와 같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4년 동안 큰글자책이 배포된 도서관은 총 6,355곳으로, 한 해 평균 약 454곳의 도서관에 큰글자책이 보급되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한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이 7,740개관(작은도서관 6,448개관, 장애인도서관 32개관, 교정시설도서관 52개관 포함)인 것을 감안하면, 큰글자책이 배포된 한 해 평균 도서관 수는 전체의 5.9%에 불과한 실정이다.

### 3. 큰글자책의 서지적 특성

한국도서관협회에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제작 및 보급한 큰글자책의 서지적 특성은 '주제', '저자', '번역서', '출판사(제작 기관)'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 가. 주제 분야

우리나라에서 설립 및 운영되고 있는 공공도서관들 대부분은 도서를 주제별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인 한국십진분류표(KDC)의 체계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제작 보급된 큰글자책의 주제 분야 현황도 한국십진분류표(KDC)에 의거해 분석했으며, 각 도서의 주제는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자료 검색 후 청구기호에 포함되어 있는 분류 번호를 확인했다. 다음의 <표 5>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각 연도별로 선정된 큰글자책의 주제 분야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5> 연도별 큰글자책 주제 분야 선정 현황

연도\주제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어학	문학	역사	합계(권)
2009	1	2	0	3	1	6	0	0	5	4	22
2010	0	4	0	0	1	0	0	0	8	3	16
2011	1	4	1	1	1	4	0	0	8	2	22
2012	1	5	2	1	0	5	0	0	4	4	22
2013	0	4	1	5	0	6	1	0	3	3	23
2014	0	3	2	0	0	5	0	0	12	2	24
2015	2	3	1	1	0	0	1	0	14	0	22
2016	0	2	0	0	0	1	0	0	10	2	15
2017	1	3	0	3	0	4	0	0	13	0	24
2018	0	5	0	4	0	1	0	0	12	0	22
2019	1	5	0	1	0	1	1	0	5	0	14
2020	0	3	0	7	1	3	1	1	9	2	27
2021	1	3	0	9	0	1	0	0	7	3	24
2022	0	7	0	7	0	0	0	0	9	1	24
합계(권)	8	53	7	42	4	37	4	1	119	26	301
평균(권)	0.57	3.78	0.5	3	0.28	2.64	0.28	0.07	8.5	1.85	21.5

<표 5>에 정리한 바와 같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4년 동안 제작 및 보급된 큰글자책은 총 301권이다. 이를 주제 분야별로 나누면 총류는 8권(2.7%), 철학은 53권(17.6%), 종교는 7권(2.3%), 사회과학은 42권(14%), 순수과학은 4권(1.3%), 기술과학은 37권(12.3%), 예술은 4권(1.3%), 언어는 1권(0.3%), 문학은 119권(39.5%), 역사는 26권(8.7%)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큰글자책 제작 보급 사업에서도 가장 많이 선정된 분야는 '문학'이었다. '문학'은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납본 자료를 근거로 정리해서 매년 발표하는 출판통계에서 가장 많이 출간되는 분야이다. 또한 공공도서관에서는 이용자들에게 가장 많이 대출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따라서 큰글자책으로의 제작 및 보급을 위한 주제 부분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분야는 '철학'인데, 그 이유는 '논어'나 '장자'와 같은 동양고전과 '윤리학, 도덕철학'으로 분류가 된 법률티스의 책 등이 다수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어서 세 번째로 '사회과학' 분야가 많은 이유는 '노마드랜드'나 '메타버스', '코로나 이후의 세계'와 같이 현 시대 상황을 반영한 책과 '미래의 부'나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TOP 77'과 같은 경제 관련 책들이

다수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네 번째로 많은 '기술과학' 분야는 노인들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건강' 관련 책들이 다수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상의 결과를 <표 1>을 통해 제시한 한국출판협동조합의 연도별 주제별 큰글자책 제작 종수와 비교하면, 공통점으로는 상위 세 개의 주제 분야가 '철학', '사회과학', '문학'으로 같다. 그러나 선정된 종수가 한국도서관협회는 '문학', '철학', '사회과학'의 순인데, 한국출판협동조합은 '철학', '사회과학', '문학'의 순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평균에서 더욱 크게 발생하는데, 한국도서관협회는 '문학'이 8.5권, '철학'이 3.78권, '사회과학'이 3권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학'이 두 번째 비중인 '철학'의 2.2배, 세 번째 비중인 '사회과학'의 2.8배에 달한다. 그러나 한국출판협동조합은 '철학'이 23.4권, '사회과학'이 21.4권, 문학이 '18.8'권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철학'이 두 번째 비중인 '사회과학'의 1.1배, 세 번째 비중인 '문학'의 1.2배로 차이가 크지 않다.

#### 나. 저자 구분

한 권의 책은 글, 그림, 옮김, 감수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저자들에 의해 집필된다. 그들은 때로 단독으로 혹은 공동으로 집필 작업을 하는데, 저자 구분 사항에서는 '단독 및 공저 여부', '남·여 비율 구분', '최다 선정 저자'에 대한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다음의 <표 6>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4년 동안 제작 및 보급된 큰글자책의 저자사항 중에서 단독 및 공저 여부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6> 단독 및 공저 여부 분석

연도	단독	공저
2009	20	2
2010	16	0
2011	18	4
2012	18	4
2013	21	2
2014	21	3
2015	18	4
2016	15	0
2017	24	0
2018	22	0
2019	14	0
2020	25	2
2021	22	2
2022	23	1
합계(권)	277	24
평균(권)	19.8	1.7

〈표 6〉에 정리한 바와 같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4년 동안 제작 및 보급된 큰글자책의 저자 사항에서 단독 및 공저 여부를 분석한 결과, 단독 저서는 277권이었고 공동 저서는 24권이었다. 따라서 이 결과를 통해 큰글자책 제작 및 보급을 위해 선정된 책은 대다수가 단독 저자에 의해 집필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의 〈표 7〉은 단독 저자를 다시 남과 여로 구분 지어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7〉 남·여 저자 여부 분석

연도	단독 저자	남	여
2009	20	17	3
2010	16	15	1
2011	18	17	1
2012	18	15	3
2013	21	19	2
2014	21	19	2
2015	18	14	4
2016	15	11	4
2017	24	16	8
2018	22	19	3
2019	14	12	2
2020	25	23	2
2021	22	20	2
2022	23	15	8
합계(명)	277	232	45
평균(명)	19.8	83.8	16.2

〈표 7〉에 정리한 바와 같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4년 동안 제작 및 보급된 큰글자책의 저자 사항에서 남·여 저자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 277명의 단독 저자 가운데 남성은 232명으로 83.8%를, 여성은 45명으로 16.2%를 차지했다. 따라서 이 결과를 통해 큰글자책 제작 및 보급을 위해 선정된 책의 단독 저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5배 이상 많은 비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점에 대한 분석을 위해 한국작가회의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문학 분야 예술인의 현황을 전화로 확인했으나, 각각 2,300여명과 15,528명이 등록되어 있는 점 이외 성별에 대한 통계는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어서 다음의 〈표 8〉은 큰글자책 제작 및 보급 선정 도서에 가장 많이 선정된 저자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8〉 최다 선정 저자 분석

선정 책수	작가명	큰글자책 제목(선정 연도)
6권	법륜	스님의 주례사(2011), 엄마 수업(2012), 열혈청춘(2012), 인생수업(2014), (법륜 스님의) 행복(2017), 지금 이대로 좋다(2021)
5권	박완서	친절한 복희씨(2009),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2011), 어른 노릇 사람 노릇(2012), 노란 집(2014),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2014), 모래알만 한 진실이라도(2022)
5권	류시화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2011),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2018), 인생 우화(2019),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2020), 마음챙김의 시(2022)
5권	김진명	신의 죽음(2015), 싸드(2015), 예언(2018), 글자전쟁(2021), 바이러스 X(2022)
4권	최인호	불새 1-2(2011), 천국에서 온 편지(2013), 꽃잎이 떨어져도 꽃은 지지 않네(2015), 인생(2015)
4권	조정래	외면하는 벽(2013년), 정글만리 1-3(2014년)
3권	정호승	내가 사랑하는 사람(2011), 외로우니까 사람이다(2015), 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준 한 마디(2017)
3권	공지영	높고 푸른 사다리(2015), 딸에게 주는 레시피(2017), 먼 바다(2022)
3권	혜민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2015),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2017),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2020)
3권	김애란	두근두근 내 인생 1-2(2017), 바깥은 여름(2019)
3권	유시민	어떻게 살 것인가(2018), 역사의 역사(2020), 나의 한국 현대사 1959-2020(2021)

〈표 8〉에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4년 동안 큰글자책의 제작 및 보급 도서로 가장 많이 선정된 작가는 ‘법륜’이었다. 법륜의 책은 2011년에 선정된 ‘스님의 주례사’에서부터 2012년 ‘엄마 수업’, 2012년 ‘열혈청춘’(공저), 2014년 ‘인생수업’, 2017년 ‘(법륜 스님의) 행복’, 2021년 ‘지금 이대로 좋다’까지 총 6권이었다. 이어서 ‘박완서’, ‘류시화’, ‘김진명’ 작가의 작품이 각각 5권씩 선정이 되었으며, 뒤를 이어 ‘최인호’ 및 ‘조정래’ 작가가 4권, ‘정호승’, ‘공지영’, ‘혜민’, ‘김애란’, ‘유시민’ 작가의 작품이 각각 3권씩 선정되었다. 이 결과는 큰글자책 제작 및 보급을 위한 도서에도 베스트셀러 도서를 많이 갖고 있으면서 오랜 기간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이 선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 번역서 여부

납본 자료를 바탕으로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정리한 출판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신간 발행 종수는 64,657종이고 발행 부수는 79,948,185권이였다. 그런데 그 중에서 번역도서 종수는 12,210종으로 전체 발행 종수의 18.9%였다.

다음의 〈표 9〉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4년 동안 제작 및 보급된 큰글자책에 포함된 번역서 현황을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9〉 연도별 큰글자책 번역서 현황

연도	번역서 수(권)
2009	4
2010	1
2011	5
2012	3
2013	5
2014	3
2015	3
2016	5
2017	5
2018	7
2019	0
2020	6
2021	6
2022	7
합계	60
평균	4.3

〈표 9〉에 정리한 바와 같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4년 동안 제작 및 보급된 큰글자책 가운데 번역서는 총 60권으로, 이는 전체 선정 도서의 19.9%에 해당한다. 이 결과는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발표한 2021년 출판 통계의 번역서 비율인 18.9%보다 1% 높은 비율이다.

라. 출판사(제작 기관) 구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1항 및 2항에 따르면, ‘출판’이란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복제하여 간행물(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만 해당한다)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출판사’란 출판을 업(業)으로 하는 인적·물적 시설을 말한다. 흔히 출판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즉, ‘출판사의 경영자’인 회사)를 출판사라고 지칭한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2021년에 발간한 ‘KPIPA 출판산업 동향(2020년 하반기)’ 내용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에 등록이 되어 있는 출판사의 수는 총 67,203개이다. 이 가운데 도서 발행 실적이 있는 출판사는 9,120개로 13.6%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그 중에서 큰글자책을 출간하는 곳은 더욱 적을 수밖에 없는데, 큰글자책 제작 및 보급을 위한 도서로 선정이 되면 책 당 3-400권 정도를 제작하기 때문에, 해당 출판사(제작 기관)에서는 수익은커녕 손해가 나기 때문에 거절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사업 취지에 공감하여 큰글자책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출판사(제작 기관)가 늘어나고 있는데, 다음의 〈표 10〉은 큰글자책 제작 및 보급 선정 도서에 가장 많이 선정된 출판사(제작 기관)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0〉 최다 선정 출판사(제작 기관) 분석

선정 책수	출판사(제작 기관)명	큰글자책 제목(선정 연도)
15권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출판부)	새로 시작하는 제3기 인생(2009), 아름다운 노후를 위한 정신건강(2009), 제3기 인생, 디지털 날개를 달자(2009), 활기찬 노년을 위한 여가활동(2009), 세월과 마음(2009), 여럿이 함께 숲으로 가는 길(2011), 아름다운 노후를 위한 정신건강(2011), 우리 몸의 노화(2012), 운명을 읽는 코드 열두 동물(2012), 제3기 인생 운동으로 지키는 건강(2014), 대한민국 최고의 명사가 들려주는 요통과 디스크(2014), 대한민국 최고의 명사가 들려주는 위암(2014), 세월을 새긴 글 자서전(2014), 우리 그림 그려볼까요?(2015), 인과예: 다산의 논어 해석(2015)
12권	(주)도서출판 집자	오래 사는 병 당뇨(2009), 나는 늙은 농부에 미치지 못하네(2009), 늙는다는 것 죽는다는 것(2009), 하룻밤에 읽는 한국사 1-2(2009), 왕의 투쟁 1-2(2009),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2010), 서울을 거닐며 사라져가는 역사를 만나다(2010), 조선의 글쟁이들(2010), 발주물러 병 고치기(2012), 어른 노릇 사람 노릇(2012), 조선왕들의 생로병사(2012), 20년 당뇨 이렇게 극복했다!(2017)
8권	해냄	외면하는 벽(2013), 정글만리 1-3(2014), 인생전문록(2017), 공터에서(2018), 당신이 옳다(2019), 먼 바다(2022)
7권	종합출판 범우(주)	명상록(2009), 이퇴계의 활인심방(2009), 채근담(2010), 노자 도덕경(2011), 중용 대학(2012), 장자(2012), 인생의 선용(2012)
6권	북스힐	5070 두뇌 트레이닝을 위한 시니어 수학(2009), 수학은 자유이다(2010), 서교수의 남원지리산 이야기(2010), 우리가 보는 마지막 풍경(2010), 길 위에서 만난 공자(2011), 신문에서 읽은 수학이야기(2011)
6권	창비	채식주의자(2016), 투명인간(2016), 두근두근 내 인생 1-2(2017), 어머니가 들려주던 노래 1-2(2018)
5권	휴	스님의 주례사(2011), 엄마 수업(2012), 열혈청춘(2012), 당신을 만난 건 축복입니다(2014), 소금(2014)
5권	문학동네	오직 두 사람(2018), 바깥은 여름(2019), 연필로 쓰기(2020), 여행의 이유(2021), 작별하지 않는다(2022)

〈표 10〉에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4년 동안 큰글자책의 제작 및 보급 도서로 가장 많이 선정된 출판사(제작 기관)는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출판부)’이었다.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출판부)의 책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15권이 선정되었는데, 대부분 건강 관련 주제의 책들이다. 다음으로 ‘(주)도서출판 집자’에서 제작한 책은 총 12권이 선정되었는데, 이곳은 원본을 출간한 출판사가 아니라 시각장애인과 독서장애인들을 위한 대체자료를 개발 및 보급하는 곳이다. 이어서 ‘해냄’의 책은 총 8권, ‘종합출판 범우(주)’의 책은 7권, ‘북스힐’과 ‘창비’의 책은 각각 6권, ‘휴’와 ‘문학동네’의 책은 각각 5권이 선정되었다. 이 가운데 ‘북스힐’ 출판사는 ‘수학’ 분야의 책이, ‘휴’ 출판사는 ‘법륜’ 스님의 책이 주로 선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출판사(제작 기관)들 가운데 선정 책수가 가장 많은 곳과 2022년도에 선정된 두 곳을 대상으로 큰글자책 제작에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 전화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은 ‘공익성을 갖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해냄’은 ‘자사가 출간한 좋은 책을 고령자 및 저시력자들도 읽기를 바라는 마음에’, ‘문학동네’는 ‘자체 제작은 어렵지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동참하기 위함’이라고 답변했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큰글자책 보급 지원 사업에 보조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도서관협회가 제작 및 보급하고 있는 큰글자책의 현황과 서지적 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큰글자책 선정 및 제작과 보급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발표한 2009년부터 2022년까지의 큰글자책 제작도서 목록과 큰글자책 배포 도서관 목록을 바탕으로, 제작 및 보급 현황과 서지적 특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제작된 큰글자책은 총 290종 301권이였다. 이를 다시 총 사업 기간인 14년으로 나누면 연평균 종수는 20.7권이고 책수는 21.5권이였으며, 그 중 번역서는 총 60권으로 전체 선정 도서의 19.9%였다.

둘째, 큰글자책 제작 및 보급 사업 기간 동안 큰글자책이 배포된 도서관은 총 6,355곳으로, 한 해 평균 약 454곳이었다.

셋째, 그동안 제작 및 보급되었던 큰글자책 301권을 주제 분야별로 구분한 결과 문학이 119권(39.5%)으로 가장 많았고, 철학이 53권(17.6%), 사회과학은 42권(14%), 기술과학이 37권(12.3%)이었다.

넷째, 큰글자책은 단독 저서가 277권, 공동 저서가 24권이였으며, 남성 단독 저자는 232명, 여성 단독 저자는 45명이였다. 또한 큰글자책 제작 및 보급 도서로 가장 많이 선정된 작가는 법륜으로 총 6권이였다.

다섯째,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4년 동안 큰글자책의 제작 및 보급 도서로 가장 많이 선정된 출판사(제작 기관)는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출판부)'이었다.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출판부)의 책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15권이 선정되었는데, 대부분 건강 관련 주제의 책들이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서관협회에서 큰글자책 제작 및 보급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고령자나 저시력자와 같은 독서 소외인들에게도 도서관 이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총 14년 동안 큰글자책 제작 및 보급 사업을 진행한 결과 문헌정보학계나 출판계, 나아가 일반인들에게도 큰글자책 제작과 보급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등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큰글자책 제작 및 보급 사업의 높은 성과를 위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측면, 선정의 측면, 제작을 위한 측면, 안내의 측면에서 각각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는 바이다.

첫째, 큰글자책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2025년경이면 우리나라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의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가 된다. 여기에 노안을 겪고 있는 성인들과 저시력자들의 수까지 더하면, 향후 큰글자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훨씬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큰글자책 선정 및 제작, 보급을 위한 기준은 아직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독서 소외인들의 도서관 이용을 통한 정보 획득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큰글자책 선정과 제작 및 보급을 위한 기준, 예산 확보 및 활용 방안과 같은 정책들이 최우선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둘째, 큰글자책으로의 제작 및 보급을 위한 책 선정 시 주제별 적정 분배가 필요하다. 한국도서관협회가 그동안 제작 및 보급한 큰글자책은 ‘문학’과 ‘철학’, ‘사회과학’, ‘기술과학’이 전체의 83.4%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령자 및 저시력자들의 다양한 주제 분야에 대한 독서 기회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보급된 큰글자책의 대출 통계와 주 이용 대상들의 요구 분석, 출판 통계를 분석해 주제별 적정 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큰글자책 제작에 필요한 항목들을 지침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지침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면서 통일성도 기할 수 있는 규정이다. 따라서 미국시각장애인협회 등 외국 유관 기관들이 제시한 항목들을 참고하고 국내 도서관 및 출판사(제작 기관)의 여건도 감안하여 큰글자책 제작을 위한 적정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제작 및 보급된 큰글자책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도서와 다른 서지사항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큰글자책은 주 대상 독자층이 고령자와 저시력자이기 때문에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판형과 글꼴의 크기, 글꼴의 스타일, 행 간격 등 여러 측면들을 고려한다. 또한 휴대가 간편하도록 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큰글자책을 안내하는 목록의 서지사항에는 ‘주제 구분(부문, 분야)’, ‘서명’, ‘저자’, ‘역자’, ‘출판사’, ‘출판년도(발행연도, 출판일)’, ‘쪽수(페이지)’, ‘가격’, ‘ISBN’과 같은 일반적 서지사항에 ‘판형’, ‘글꼴의 크기’, ‘무게’ 등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큰글자책 제작 및 보급 현황과 서지적 특성을 분석한 첫 번째 연구이다. 그런데 목록을 바탕으로 서지적 특성 중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분석을 실행한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향후 도서관에 보급된 큰글자책이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 책들이 이용자들에게 어떤 측면에서의 가치가 있는지, 나아가 출판계와 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2023). 출처: <https://www.libsta.go.kr>
- 김기영 (2013). 서울부도심권 복합민자역사의 공공성 분석 연구: 청량리역, 왕십리역, 신촌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건축도시디자인학과.
- 김시내 (2003). 권장도서의 선정 현황과 특성 분석: 유아도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

- 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 김연희 (2017). 공공미술의 공공성 실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대학원 공연예술 경영학과.
- 대한출판문화협회 (2023). 출판통계. 출처: <http://kpa21.or.kr/kpa-data/statistics>
- 도서관법 (2020). 제2조(정의). 출처: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0830#P2>
- 도서관여행자 (2022). 도서관은 살아 있다. 서울: 마티.
- 문헌정보학용어사전 (2023). 출처:  
[https://www.kla.kr/kla/reference07?sfl=wr\\_subject&stx=%EC%84%9C%EC%A7%80&sop=and&page=2](https://www.kla.kr/kla/reference07?sfl=wr_subject&stx=%EC%84%9C%EC%A7%80&sop=and&page=2)
- 박선주 (2004). 실버출판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연구: 출판사 편집자 인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출판전공.
- 박찬수 (2021). 큰글자책 출판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소고. 한국출판학연구, 47(1), 31-54.  
<http://dx.doi.org/10.21732/skps.2021.98.31>
- 서수미 (2013). 공공건축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공간디자인 접근 방법 연구.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디자인경영학과.
- 커지는 큰 글자책 시장 (2022). 아시아경제. 출처: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52013174144983>
- 염철호, 조준배, 심경미 (2008). 건축·도시공간의 현대적 공공성에 관한 기초 연구. 안양: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육근해 (2009). 노인용 큰글자도서 개발을 위한 적정문자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2), 171-192.
- 이윤석 (2020). 청소년 추천도서의 선정과 서지적 특징.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장혜란 (2015). 노안 독자를 위한 큰글자도서 이용가능성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2(3), 341-360.
- 전창호 (2021). 서지, 서지사향, 서지요소, 서지적 관계, 서지레코드, 서지데이터. 출처:  
<https://blog.naver.com/chjeon/222544201649>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2021). 출처: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9350>
- 큰글편집위원회 (2010). 큰글세계문학전집출간. 출처: <http://mediamove.org/51>
- 하석현 (2014). 전시컨벤션센터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전시 컨벤션센터 내 업무시설 운영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 부동산학과.
- 한국도서관협회 (2013). “대활자본을 활용한 노인 독서 활성화” 사업을 위한 도서목록 협조 요청. 출처: <https://www.kla.kr/kla/national01/6?page=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1). KPIPA 출판산업 동향(2020년 하반기). 전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출판협동조합 (2023). 큰글자책 사업. 출처:

<http://www.koreabook.or.kr/work/largeLetter.do?cate=work&page=largeLetter>

American Council of the Blind (2011). Best Practices and Guidelines for Large Print Documents used by the Low Vision Community. Available:

<https://acb.org/best-practices-and-guidelines-large-print-documents-used-low-vision-community-authored-council>

Hamilton, J. (2022). How to Publish Large Print Books and Why You Should. Kindlepreneur. Available: <https://kindlepreneur.com/large-print>

Kavanash, R. & Skold, C. (2005). Libraries for the Blind in the Information age Guidelines for Development. Hauge: IFLA (IFLA professional report NO. 86)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Growing large print book market (2022). Asian Economies. Available: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52013174144983>

Ha, Seok-Hyun (2014). A Study on the Public Nature of Exhibition Convention Center: Focusing on the Operation of Business Facility in the Exhibition Convention Center. M.A. thesis, Department of Real Estate Graduate School of Urban Real Estate of Sejong University.

Jang, Hye-Rhan (2015). Availability of accessible large-print books for the readers with presbyopia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2(3), 341-360.

Jeon, Chang-Ho (2021). Bibliography, Bibliography, Bibliographic Elements, Bibliographic Relationships, Bibliographic Records, Bibliographic Data. Available: <https://blog.naver.com/chjeon/222544201649>

Kim, Gi-Young (2013). Analysis on the Publicity of the Private-Invested Railroad Station Complex in the Subcenter Seoul: Focused on cheongnyangni, wangsimni and sinchon station. M.A. thesis, Department of Architecture Urban Design Graduate Schoo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of Chung-Ang University.

- Kim, Si-Nae (2003). An Analysis of the Selection of Recommended Book Listing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Books for Young Children in South Korea. M.A. thesis, Department of Child Psychology an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ungkyunkwan University.
- Kim, Yeun-Hee (2017). A Study on the Realization of Publicness through Public Art. Ph. D. Dissertation, Department of Performing Arts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Sangmyoung University.
- Korea Publishers Cooperative (2023). The Large Print Book Business. Available: <http://www.koreabook.or.kr/work/largeLetter.do?cate=work&page=largeLetter>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3). Request for Cooperation in Book Lists for the “Activating Reading for the Elderly Using Large Print Book” project. Available: <https://www.kla.kr/kla/national01/6?page=3>
- Korean Publishers Association (2023). Publication Statistics. Available: <http://kpa21.or.kr/kpa-data/statistics>
- Large Print Editorial Board (2010). Publishing of the World Literature Collection in Large Print. Available: <http://mediamove.org/51>
- Lee, Yoon-Suk (2020). A Study on Selection and Bibli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commended Books for Youth. M.A. thesis,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Graduate School of Incheon National University.
-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Glossary (2023). Available: [https://www.kla.kr/kla/reference07?sfl=wr\\_subject&stx=%EC%84%9C%EC%A7%80&sop=and&page=2](https://www.kla.kr/kla/reference07?sfl=wr_subject&stx=%EC%84%9C%EC%A7%80&sop=and&page=2)
- Library Law (2020). Article 2(Definitions). Available: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0830#P2>
- Library Traveler (2022). The Library is Alive. Seoul: Mati.
- National Library Statistics System (2023). Available: <https://www.libsta.go.kr>
- Park, Chan-Su (2021). A note on the sustainability of publishing big textbooks. Studies of Korean Publishing Science, 47(1), 31-54. <http://dx.doi.org/10.21732/skps.2021.98.31>
- Park, Sun-Joo (2004). A Research on the Present and Future of Silver Publishing: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Publisher Editors.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Mass Communication of Sogang University.
- Publication Culture Promotion Law (2021). Available: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9350>

-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2021). Trends in the KPIPA Publishing Industry (second half of 2020). Jeonju: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 Seo, Su-Mi (2013). A Study on Spatial Design Approach for Realization of Publicness of Public Architecture. Ph. D. Dissertation, Department of Design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 Youk, Keun-Hae (2009). A study on the proper large print for the development of books for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2), 171-192.
- Youm, Chirl-Ho, Jo, Jun-Bae, & Shim, Kyung-Mi (2008). A Fundamental Study on the Contemporary Publicness of Architecture & Urban Space. Anyang: Architectural Urban Space Institute.